

민족문자－훈민정음의 창제원리를 논함

김영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이 총명하고 우수한 민족이라는것은 <훈민정음>을 창제한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가장 발전된 글자입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1권 281페이지)
언어학부문에서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일층 심화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족문자인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있는 그 창제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문제도 그 한 측면이다.

민족문자 훈민정음의 창제원리인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做古篆)》이라는 구절을 이해하는데서 각이한 견해가 제기되는것은 그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관련한 기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세종 25(1443)년 12월 《세종실록》

《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做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이달에 임금이 직접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였으며 초, 중,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룬다.)

ㄴ. 세종 27(1445)년 2월 《세종실록》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의 반대상소문:

《則字形雖做古之篆文…》(곧 글자의 모양은 비록 옛날의 전자를 모방하였으나…)

ㄷ. 세종 28(1446)년 9월 상한 《세종실록》 정린지 서문

《象形而字做古篆》(모양을 본따고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였다.)

ㄹ. 세종 28(1446)년 9월 상한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ㄱ의 기록에서 임금이 만들었다는 28자는 초, 중, 종성으로 나눌수 있는 자모(字母)를 말하며 그것이 합쳐진 다음에야 글자를 이룰수 있다고 한 《其字》는 초, 중, 종성의 자모를 합친 음절문자를 말하는것으로 된다.

그리고 ㄴ의 기록에서는 정음 28자는 각각 《象形》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를 가리키는 말로 된다.

ㄷ의 기록에 나오는 《字形》이나 ㄱ, ㄷ의 기록에 나오는 《字做古篆》의 《字》는 초, 중, 종성의 자모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合之然後乃成字》(합한 연후에 이루어진 글자) 즉 음절문자를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초, 중, 종성의 자모를 합한 음절문자는 그 모양이 념적글자 모양으로 되어있어 옛 전자(古篆)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말이다.

이상의 기록들에서 명백해진바와 같이 《象形》으로 만들어진것은 정음 28자이며 《古篆》을 모방했다는것은 분명히 초, 중, 종성이 합쳐진 음절문자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字倣古篆》이라고 한 《字》는 초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28자를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字倣古篆》을 잘못 이해하여 《字》를 정음 28자로 인정하고 《古篆》을 이른바 《가림토(加臨土)》로 보면서 정음자가 마치 그것과 관련되는듯이 주장하는 견해가 한때 제기된적이 있었다.

《가림토》란 《환단고기(桓檀古記)》나 《단군세기(檀君世記)》와 같은 야사들에 기록되어있던것으로서 조선봉건왕조시기이전에 신지자(神誌字)가 아닌 우리의 고유한 소리글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대상을 말한다.

이 야사들에서 말하는 《가림토》란 낱소리글자로서 그 모양새가 훈민정음과 비슷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가림토》는 지난날 일본에서 한때 떠들다가 자취를 감추고만 《신대문자(神代文字)》와 신통히도 그 모양새가 같다.

15세기에 우리 나라에서 훈민정음과 같은 우수한 문자를 만들어내자 일본에서는 일부 국수주의자들이 자기네가 훈민정음과 같은 훌륭한 문자를 가지지 못하였던것을 큰 수치로 여기고 옛날에 마치 자기네도 그러한 문자가 있었다는듯이 주장하면서 《신대문자》라는것을 조작하여 들고나왔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선의 언문(諺文)》이라는것은 자기네의 〈신대문자〉가 그 나라에 전해진것을 개작한것》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후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소위 신대문자의 다수는 1자 1음의 알파벳으로 된것인데 회화, 상형의 시대를 밟지 않고 곧 고급한 표음문자를 그것도 상고시기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것은 세계문자력사상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1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것은 《조선의 훈민정음을 모방한 위작(僞作)》*2이라고 까밝히었다.

*1, *2 《일본문법론》(가네자와 쇼사부로)

낱소리글자를 만들자면 세밀한 음성분석에 기초하여 어음들을 일정한 류형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어음분석능력과 함께 그 류형화를 위한 세밀한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대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신대(神代)》 즉 상고시대에는 일본의 과학발전수준에 비추어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을뿐아니라 그 글자모양새가 정음자와 유사한것으로 하여 일본학자들은 《신대문자》란 조선의 정음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모방하여 후에 만들어낸 위작* 즉 가짜임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것이다.

*《국어학통론》(가네자와 쇼사부로)

《환단고기》나 《단군세기》에서 들고나온 《가림토》글자라는것이 이미 일본학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한 소위 신대문자와 그 모양새가 신통히도 같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상 《가림토》글자는 실재한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지난날 떠들던 《신대문자》를 그대로 본따서 후기에 모방하여 조작한것이다.

일본에서 위작이라고 비판하여 이미 논의밖으로 내던진 《신대문자》를 가지고 《환단고기》와 《단군세기》에서는 마치 오랜 옛날에 《가림토》와 같은 소리글자가 있었던것처럼 우리 나라 문자생활의 역사를 논하였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신대문자》를 들고나온것과 유사한 조작품으로서 일찌기 그 허위성이 밝혀지고 비판받은적이 있었다.

한마디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字倣古篆》의 《古篆》은 결코 《가림토》를 가리키는 말로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古篆》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정린지(鄭麟趾)의 서문에 있는 《象形而字倣古篆》에서 《고전을 모방하였다는 것은 자형에 한한 문제》로서* 이것은 성음원리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 《정음발달사(하)》(홍기문) 26페이지

정린지의 서문에서 《象形》이라고 한 대상은 정음 28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훈민정음》해례의 제자해에서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정음 28자가 각각 그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선행학자들도 주장한 것처럼 《고전을 모방하였다는 것은 자형에 한한 문제》이지 성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字倣古篆》의 《古篆》을 모방하였다는 문자는 성음을 나타내는 정음 28자의 개개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결국 《古篆》을 모방하였다는 것은 초, 중, 종성을 합친 연후에 이루어진 음절문자를 녀두에 두고 한 말이다. 다시말하여 음절문자가 네모배기넙적글자로 되어있어 그것이 마치 옛전자(古篆)의 모양새를 닮았다는 것이다.

*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는 음절의 3분법과 그것을 음절단위로 합성하여 문자를 만들면서 네모배기의 모양을 한 것 등으로 미루어보아 팔사파자(八思巴字)를 어느 정도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字》는 어디까지나 음절문자를 녀두에 둔 것이었다.

이처럼 음절자로 된 정음자의 모양새가 방패형(方罫形)으로 되어있는데로부터 지난날 범자(梵字)기원설, 팔사파자(八思巴字)기원설을 비롯하여 여러 설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시아의 여러 문자들이 대체로 네모배기모양의 음절문자로 되어있기때문에 나온 제 나름의 추정들이었다.

세종년간에 벌린 민족문자의 창제를 위한 치밀한 준비사업과 그 실용을 위한 집현전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꾸준한 탐구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 상세히 소개되어있다.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주변나라의 문자들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그 우단점을 찾아내고 우리 말의 어음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진행한 다음 발음기관에서의 조음상차이에 따라 그것을 류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발음상특징에 따르는 차이를 과학적으로 확정한 다음 독창적인 발음기관상형의 원리에 따라 자모문자를 만들어내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독창적인 창조물인 정음 28자인 것이다.

《언문제유(諺文諸儒)》로 일컬어지는 집현전의 8명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창제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사업을 광범하게 다방면적으로 벌린 정형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의 기록과 함께 정린지의 서문, 이들의 묘지(墓誌)와 비명(碑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도 세종은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훈민정음의 실용을 위

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세종은 언문청에서 창제된 정음문자의 실용을 위한 여러가지 준비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26년 갑자 2월조에는 최항, 박팽년, 신숙주, 리선로, 리개, 강희안 등에게 지시하기를 의사청에 나가서 《운회(韻會)》를 언문(諺文)으로 번역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언문청에 관한 첫 기록으로 된다.

또한 《세종실록》28년 병인 11월조에는 언문청에서 《태조실록》을 들여다가 참고하여 룡비시(龍飛詩)에 첨부하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 29년 정묘 7월조에도 언문청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룡비시》란 《룡비어천가》의 125개 시를 이르는 말이다.

언문청은 집현전을 중심으로 별개로 설치한 부서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립시로 설치한 부서인것으로 하여 정식으로 되는 직제가 있던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세종실록》32년 경오 10월조에는 궁중에 정음청(正音廳)을 따로 설치하여 환관들이 그것을 관장(管掌: 주관하여 맡아보는것)하게 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12월조에는 정음청에서 《소학(小學)》을 찍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책은 훈민정음으로 주음한 《직해소학(直解小學)》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종말년에 나왔다가 문종초년인 1452년에 없애버리고만 정음청은 집현전의 학자들이 관여하였던 언문청과는 별개의 립시부서였다.

이처럼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 그 실용을 위한 여러 대책으로서 언문청을 두었으며 왕궁안에 따로 정음청을 두었던것이다.*

* 다년간에 걸친 학자들의 체계적인 어음분석과 문자들의 비교연구의 결과에 비로소 소리글자가 만들어지고 언문청과 정음청을 통한 실용대책이 뒤따르는것인데 아무런 연구의 흔적이 없고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상고시대에 《신대문자》나 《가림토》와 같은 소리글자가 있었다고 주장할수 있겠는가. 그것을 주장하려면 그것을 뒤받침할만한 한 자료의 고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 15세기에 훌륭한 자모문자를 만들어놓고도 왜 방패형의 음절자로 합성하여 쓰도록 하였겠는가.

당시 정음자를 만들게 된것은 우리 말의 입말을 충실히 표기하려는 목적과 함께 당시 우리 한자음을 교정하여 바로잡고 표기하려는데도 일정한 목적의 하나가 있었다.

세종은 우리 한자음이 중국의 한자음과 다른것을 비정상적인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교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우선 《홍무정운(洪武正韻)》을 정음자로 표기한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을 찍어내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 식 교정음을 반영한 《동국정운(東國正韻)》을 편찬함으로써 한자교정음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그것을 표기하는데 정음자를 리용하였던것이다.

또한 민족문자를 창제한 다음 그 실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만든 문헌들인 《룡비어천가(龍飛御天歌)》나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등을 지을 때도 모두 정음자와 한자를 섞어쓰도록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정음 28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한 자모문자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사용에서는 초, 중, 종성자를 합한 음절자로 만들어쓰게 된것이다.

이처럼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정음 28자의 자모들은 상형의 방식으로 창제 되었으며 초, 중, 종성자를 합한 음절자는 방패형인 고전(古篆)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 문자가 방패형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정음자도 역시 표의문자인 한자의 음이 음절단위로 되어있어 그 표기에 대응할 수 있게 초, 중, 종성자를 합한 음절자인 방패형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념두에 두지 않고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지난날 여러 가지 억측을 하여왔던 것으로서 《古篆》이 마치 《가림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종실록》에 나오는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룬다.)》의 내용을 잘 음미하게 되면 앞에 나오는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며 훈민정음의 창제원리가 스스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말과 글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의 상징이며 민족적단합을 위한 커다란 힘이다. 특히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자인 훈민정음은 세계문자사상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문자창제이론의 과학성과 그 실용의 평이성으로 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세계문자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식경제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음과 모음에 따르는 자모문자를 만들어놓았으면 다른 나라의 글들처럼 그대로 풀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왔다. 그것은 출판인쇄의 비능률성과 번잡성을 가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지식경제시대에 와서는 자연언어처리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조건에서 자모문자를 음절단위로 합성하여 음절자로 만들어 쓴다고 하여도 불편할 점이 없다.

컴퓨터에 의한 언어정보처리에서는 오히려 종전에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어왔던 소리값이 없는 초성자 《ㅇ》이 음절구획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되고있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음절단위로 된 글자의 구획이 더욱 명료해지고 있다.

우리 민족문자는 40개의 자모를 가지고 세계 그 어느 나라 말이든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각종 어음의 표기가능성의 측면에서 우리 민족문자를 따를 문자는 이 세상에 없다.

바로 그 우점으로 하여 아직 문자를 가지지 못한 민족이나 나라들에서 우리 민족문자를 가져다 쓰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웅당 우수한 민족문자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높은 민족적공지를 가져야 하며 자기 민족문자를 무한히 사랑하고 그 우월성에 대하여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하여야 한다. 또한 민족문자-훈민정음의 과학적인 창제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자의 우수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훈민정음, 가림토, 상고